

박지성 “한국 16강 진출 가능성 50%”



러시아월드컵 SBS 해설위원으로 나서는 박지성과 함께 중계를 맡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16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설위원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어색하다. 월드컵이 세계적인 축제인만큼 나 역시 대회를 즐기고 싶다. 축구 팬들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축구스타 박지성(37)이 16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SBS ‘러시아월드컵’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지성은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SBS 해설위원을 맡았다. 2014년 은퇴 이후 박지성이 정식 해설위원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성재(40) 아나운서와 중계석에서

호흡을 맞춘다.

박지성은 “배 아나운서를 믿고 해설위원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배 아나운서가 해설을 통해 어떤 축구를 했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팬들과 공유하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설득했다. 그제 해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해설 콘셉트는 하다 보면 결정될 것”이라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리허설을 통해 찾을 것이다. 팬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잘 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러시아월드컵 SBS 정식 해설위원으로 나서 “언제나 이번 일어나...월드컵 참가 큰 기쁨”

주역인 박지성은 2006년 독일대회와 2010년 남아공대회에서도 대표팀을 이끌었다.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며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2002년 대회 주인공들 간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지성은 MBC 안정환(42), KBS 이영표(41) 해설위원과의 경쟁을 하게 됐다.

박지성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청률을 고민할 것이지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팬들이 다양한 해설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각자 다른 선수 생활을 했고 축구를 보는 관점도 다르다.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다르게 해설할 것이다.”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정환, 이영표 해설위원이 말하는 것을 봤다”며 “확실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상태로 보서는 50%가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월드컵에서는 언제나 이번이 일어난다. 남은 시간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팬들의 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 격려도 잊지 않았다. 박지성은 “최종예선을 통해 대표팀에 대

한 비난이 많았던만큼 선수들 부담도 클 것이다. 오히려 선수들이 대회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월드컵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자 혜택이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대회일 것이다. 즐겁게 부상없이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6)을 꼽았다. “스스로 결정지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한국선수가 많지 않았다. 그런 선수를 대표팀이 가겠다는 것이 큰 무기다. 잘 활용해야 할 부분이다.”

4강 진출팀으로는 브라질·독일·프랑스를 예상했다. “ 나머지 한 팀은 이번을 예상해 물음표로 남겨 두겠다. 결승전 예상은 굉장히 어렵다.”

박지성은 “브라질을 우승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며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망·PSG·26)가 부상에서 일어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조별 리그를 통과해 어떤 팀끼리 붙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우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장면, 잊어주세요”

역대 월드컵 한국 대표팀 흑역사 순간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환희와 영광의 순간도 선사했지만, 이쁜 기억을 더 많이 남긴 것이 사실이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월드컵의 순간들을 대한축구협회가 돌아봤다.

월드컵 데뷔전인 1954년 스위스 대회 헝가리전에서 한국은 0-9라는 참패를 당한다. 9골차 패배는 1974년 월드컵에서 아프리카의 지이르가 유고에 0-9로 패하고, 1982년 대회에서 엘살바도르가 헝가리에 1-10으로 대패한 것과 함께 최다골차 패배 공동 1위에 올라있다.

한국은 1954년 대회 2차전에서 터키에 0-7로 졌다. 단일 대회에서 한 팀이 16골을 실점한 것은 최다 기록이다. 월드컵 전체 역사를 통틀어 최단 시간 실점의 불명예도 갖고 있다. 터키와의 2002년 한일월드컵 3~4위전에서 전반기 시작 11초만에 허간 수쿠르에게 골을 허용했다. 홍명보의 치명적인 실수 탓이다.

한국은 역대 월드컵에서 총 67골을 실점했는데 이 중에는 2골의 자책골도 포함됐다.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탈리아전(2-3패)에서 조광래가 한국 선수 첫 자책골을 기록했다. 2010년 남아공 대회 아르헨티나전(1-4)에서는 박주영이 공을 우리 골문을 차넣었다.

31경기를 치르는 동안 퇴장은 두 번 당했다.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우루과이전에서 윤덕영(현 여자대표팀 감독)이 첫 번째 퇴장의 장본인이 됐다. 윤덕영은 후반 0-0으로 맞선 상황에서 골키퍼를 빨리 차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멕시코전 하석주(현 아주대 감독)의 퇴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선제골을 넣고 불과 3분 뒤인 전반 30분, 상대 뒤쪽에서 시도한 태클로 골

바로 빨간 카드를 받았다. 1-3 역전패의 발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하석주는 오랫동안 비난에 시달렸다.

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만큼 부진한 경기와 패배에 따른 후폭풍도 거셌다. 1986년 대회에서 마라도나를 막는 허정무의 육탄 수비가 외신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태권도 축구’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1990년 대회에서는 연패를 당하고 있던 대표팀이 수명장에서 한가로이 쉬는 모습이 뉴스로 전해져 팬들의 분노를 샀다. 사실 그 장면은 긴장을 풀고 재충전하는 영상을 담기 위해 방송사가 선수들에게 연출을 간청한 것이었다.

1994년 미국 대회 때는 볼리비아전에서 여러 찬스를 허공으로 날린 황선홍이 순식간에 ‘국민 전반기 시작 11초만에 허간 수쿠르에게 골을 허용했다. 홍명보의 치명적인 실수 탓이다.’

한국은 역대 월드컵에서 총 67골을 실점했는데 이 중에는 2골의 자책골도 포함됐다.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탈리아전(2-3패)에서 조광래가 한국 선수 첫 자책골을 기록했다. 2010년 남아공 대회 아르헨티나전(1-4)에서는 박주영이 공을 우리 골문을 차넣었다.

31경기를 치르는 동안 퇴장은 두 번 당했다.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우루과이전에서 윤덕영(현 여자대표팀 감독)이 첫 번째 퇴장의 장본인이 됐다. 윤덕영은 후반 0-0으로 맞선 상황에서 골키퍼를 빨리 차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멕시코전 하석주(현 아주대 감독)의 퇴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선제골을 넣고 불과 3분 뒤인 전반 30분, 상대 뒤쪽에서 시도한 태클로 골

이승우, 오른다리 골근 피로 호소

세리에A 최종전 빠질 듯...조기 귀국 21일 대표팀 출정식 참석

이승우(20·엘라스 베로나)가 부상으로 이탈리아 세리에A 최종전에 결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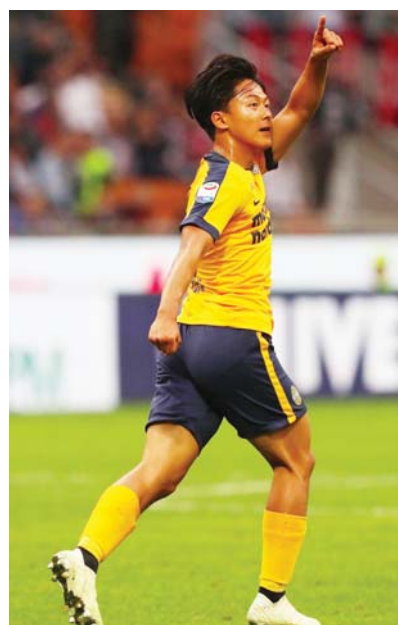
엘라스 베로나는 17일(한국시간) “이승우 선수가 훈련 도중 오른 다리 골근 피로를 호소했다”며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베로나는 19일 토리노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유벤투스와 2017~2018 세리에A 최종 38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이승우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28명의 예비 명단에 깜짝 발탁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베로나로 이적한 이승우는 최근 들어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을 받았다. 이달 초 명문 클럽인 AC밀란을 상대로 이탈리아 프로부대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 13일 우디네세전에서 선발 출장하며 풀타임 활약했다.

한편 이승우는 당초 계획보다 일찍 귀국, 21일 한국 축구대표팀 출정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추신수, 시애틀전 내야 안타 1타점...타율 0.241

3경기 연속 안타...오승환 3G 휴식

3경기 연속 안타...오승환 3G 휴식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와 타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5타수 1안타 1타점 1삼진을 기록했다.

타격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시즌 타율은 0.242에서 0.241(171타수 41안타)로 소폭 하락했다. 시즌 타점은 16개로 늘었다.

추신수는 시애틀 선발 크리스티안 버그만을 상대로 1회 초 1사 후 첫 타석에서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4회 1사 후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공, 6회 2사 1루에서는 체인지업에 방망이가 헛돌며 삼진으로 물러났다.

8회 타피 0-0의 균형을 깨고 선취점을 뽑은 뒤 계속된 2사 2, 3루에서는 3루수 파울 플레이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가다리엔 안타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나왔다. 팀이 적시타 없이 3점을 추가한 9회 2사 1루에서 2루수 방면 깊숙한 타구를 쳤다. 추신수는 1루로 전력질주 해 세이프를 이끌어냈다.

시애틀은 비디오관독을 요청했지만 원심이 유지되며 내야안타가 됐고, 썩기 타점까지 올랐다.

텍사스는 5-1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에서 벗어났다. 비탈로 폴론이 7%인 4안타 3타점 무실점 호투하며 시즌 2승(1패)을 챙겼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뉴욕 메츠와 원정 경기에서 홈런 3방 포함 장타 15안타를 터뜨리며 12-1로 대승을 거뒀다.

토론토 핵심 불펜 오승환은 팀이 여유 있게 앞서면서 등판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난 13일 보스턴 레드삭스전 1%인 1안타 무실점 호투 이후 3경기 연속 휴식을 취했다.

오승환은 시즌 평균자책점 1.45(18%인 3자책)를 기록 중이다.

루키 박지수, WNBA 단장들 주목...대성공 신인 4위

시범경기 인상적인 활약...엔트리 진입 가능성 높여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단장들도 루키 박지수(20·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의 WNBA 연차록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WNBA는 2018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12개 구단 단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박지수는 ‘가장 인상적인 시즌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선수’ 문항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1위는 9표를 얻은 앨리스 윈스 소속 리즈 캠페이지(호주)가 차지했다. 박지수는 다미리스 단타스(브라질), 마리아 바디에바(러시아)와 함께 1표씩을 얻어 2위 그룹을 형성했다.

리즈 캠페이지는 208cm의 장신 센터로 호주 국가대표 출신이다. 세계 정상급 선수로 이번 시즌을 앞두고 4년 만에 리그에 복귀했다. 다미리스 단타스는 지난 시즌 박지수와 함께 WKBL 정규주 KB스타즈에서 호흡을 맞췄다. 바디에바는 러시아 국가대표이자 LA 스팅스의 신인 센터다.

박지수는 현재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신인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선수 항목에서도 공동 4위에 올랐다.

4표를 얻은 모니크 빌링스(애들랜타)가 1위를 차지했고, 아리엘 에킨스(워싱턴)와 에이저라 스티븐스(멜버른)가 2표씩 얻었다.

박지수는 조던 캐나다(시애틀), 미샤 앨런(워싱턴), 스페냐 마빙가, 켈시 미첼(이상 인디애나)과 함께 1표씩을 얻어 공동 4위를 기록했다.

박지수는 두 차례 시범경기에서 경기당 20분 가량을 소화하며 평균 6점 4.5리바운드 2.5블록슛을 기록했다.

박지수는 팀내 두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 받았다. 블록슛 부문 전체 2위에 오르는 등 수비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라스베이거스는 17일 시애틀 버덕, 이베히 슬레이터, 시케이아 홈스 등 세 명을 방출했다. 현재 로스터는 17명이며, 개막 엔트리는 12명이다. 최종적으로 5명이 빠지게 된다.

박지수가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면 21일 코네티컷 선과 정규리그 원정 경기부터 출전한다.

뉴스

뉴스

내년 프로야구 정규리그 3월29일 개막

올스타전 휴식이 7일로 늘어

내년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3월29일 개막한다. 올스타전 휴식은 4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오전 2018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 경기일정 편성 원칙을 확정했다.

2019년 정규리그는 올해보다 5일 늦은 3월28일 금요일에 막을 올린다.

2017년 상위 5개팀인 KIA 타이거즈, 롯데, SK 와이번스(인천 SK행복드림구장), SK 와이번스(인천 SK행복드림구장), SK 와이번스(인천 SK행복드림구장)의 홈 구장에서 개막전을 치른다. NC는 새로 개장하는 야구장에서 다음 시즌을 시작한다.

개막전 상대팀은 순위와 관계없이 팬들과 마케팅 등을 고려해 편성한다.

내년 올스타전은 7월20일 토요일에 열린다.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



수들이 후반기에 경기력을 향상하려면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존 4일었던 올스타 휴식이 7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휴식이 된다.

2019년 시범경기는 3월 14일 개막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를 치른다.

KBO는 10개 구단의 다음 시즌 운영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극대화를 위해 포스트시즌 종료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규시즌 경기일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